

# 잊혀가는 문화, 과학기술로 살린 'ACC 미래운동회'

내달 1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개최 시민 제작·참여형 전시 등 종목 다채 ACC 누리집서 참가자 선착순 모집 "첨단기술로 새로운 스포츠문화 제시"

운동회는 오랫동안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어린이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자라났고 성인이 된 후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우리 곁에 함께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운동회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운동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예술과 기술, 놀이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운동회 'ACC 미래운동회'가 다음달 1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개최된다.

'ACC 미래운동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한 미디어 교육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다. '올림픽'이 아닌 '운동회'를 모티브로 경쟁보다는 협력과 포용을 강조한다. 이는 승패보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ACC 미래운동회'의 체험형 전시 종목 '디지털 땅따먹기'.

ACC 제공

있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창조한다.

이번 운동회는 체험형 전시와 상시 관람이 가능한 전시로 나뉜다. 먼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는 △디지털 땅따먹기 △굴러라 모여라 △A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불나방 대소동 △다함께 춤을 추다가 △스포츠 타임머신 △그림자

축구 △파르릉 전화방으세요 등이다. 연계 행사로 운동회의 역사, 예술과 스포츠의 관계, 콘텐츠 개발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도 마련됐다.

'ACC 미래운동회'의 본 행사는 총 4회 진행된다. 먼저 2일 광주시교유청과 협력해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운동회가 열린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운동회가 열리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톤과 운동회'는 9-10일(1차), 23-24일(2차)에 각각 진행된다.

'해커톤과 운동회'에서 참가자는 스스로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기획하고 개발

하는 창작자가 된다. 이렇게 탄생한 종목들은 실제 미래운동회 본 행사에서 경기로 진행되며, 이어 열리는 운동회 행사와 전시에 반영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종목도 즐길 수 있다.

참가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행사별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상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 콘텐츠 개발은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대표적 디지털아트 기관인 아마구치정보예술센터(YCAM)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로 추진됐다.

ACC는 이번 'ACC 미래운동회'가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한 놀이를, 디지털을 접목해 즐길기으로써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운동회 문화를 함양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상욱 ACC 전담장은 "ACC 미래운동회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친숙하게 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시 '애호가 편지'와 연계한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가 오는 4~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일렉트로니코스 판타스티코스! 작 '전자 선풍기 하프'.

ACC 제공

## "돌아온 각설이가 펼치는 현대판 품바 타령"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 선배 4~5일 ACC 복합전시2관 중앙홀

성황리에 진행 중인 전시 '애호가 편지'와 연계한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가 오는 4~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1일 ACC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전시 '애호가 편지'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와 아시아 뽕짝이 보여주는 도시 풍경을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전시로 오는 8월24일까지 복합전시2관에서 열린다. 5개국 13팀의 작가가 참여해 상호작용 예술, 키네틱 설치,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된 작품 14종을 선보인다.

이 전시와 연계한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는 오랜 전통을 지닌 서민 문화지만 주목받지 못한 '각설이'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번 무대는 장터에서 옛가위와 북을 치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클럽 무대에서 디제잉을 하는 '테크노 각설이 식사'의 협연으로 꾸민다. 각설이 품바 문화를 현대 전자음악과 결합해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공연을 기획한 윤결 작가는 '애호가 편지'에서 각설이 품바를 기록한 영상 작품

'소리기가 열린다'를 통해 역사 속에서 배제된 소리와 존재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연에 참여하는 작가 '테크노 각설이'는 한국의 트로트와 뽕짝, 태국의 모람, 베트남의 비나하우스 등 아시아 음악의 리듬을 재조합해 관객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상호작용 작품 '트랜스로컬 댄스 마차'를 선보인다. 작가 '빠기'는 원색 패턴을 조합한 설치물, 조명, 미러볼로 구성된 '판따라-판따' 키네틱 작품을 전시하며 트로트가 가진 정과 한의 정서를 재해석한다.

직접 만든 독특한 전자악기 '난센스 머신'으로 유명한 메이와덴키 작가는 가수 '이박사'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로봇 '메카 트로트'를 통해 영풍하면서도 유쾌한 아이디어로 도시민의 결핍을 보듬는 이야기를 선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뮤지션 '모과'는 콜라텍을 재현한 작품 '짜의 기본'으로 현대전자음악과 사교음악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 외에도 일렉트로니코스 판타스티코스!의 작품 '전자 선풍기 하프: 빛과 그림자의 음계'는 서민의 정서가 묻어있는 선풍기를 악기로 되살려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창조하는 작품세계와 트로트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박찬 기자

## 무한한 상상력과 감성으로 몽친 인형극 2편 ACC 무대 오른다

ACC재단, '꽃잠·돈 웨이트 포 미' 24-25일·내달 7-8일 어린이극장

인형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상상 속 세계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ACC재단)은 춘천에서 열리는 '유니버시티&춘천세계인형극제'와 손잡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형극 두 편을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첫 무대는 24~25일에 공연되는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제작한 작품 '꽃잠'으로 꾸며진다. 이 작품은 전쟁과 난민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동화적으로 풀어낸 인형극이다.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고 체념증후군을 앓고 있는 주인공 '마리'는 공포를 피해 꿈속으로 피신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리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안전'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연극적 상상

력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프랑스 극단의 '돈 웨이트 포 미'(Don't wait for me)가 무대에 오른다.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창적인 공연을 통해 상상력과 감성 넘치는 세계를 선사할 전망이다. 무대 위에서 상상 속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 관객에게 꿈꾸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외 우수 인형극을 소개하고,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깊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어린이극장이 세계 인형극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공유하는 무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꽃잠'과 '돈 웨이트 포 미'는 각각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다음달 7~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이는 프랑스 극단의 인형극 '돈 웨이트 포 미'(Don't wait for me). ACC재단 제공

## ACC, '민주·인권·평화' 가치 담은 숏폼 공모전

일반·AI 활용 영상 분야 공모 7월31일까지 이메일 신청 문체부 장관상 등 22명 선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ACC 민주·인권·평화 숏폼 영상 공모전'을 오는 7월31일까지 개최한다.

1일 ACC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5·18민주화운동 △ACC 개관 10주년 등으로 응모



자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거나 종합해 30~6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일반영상과 인공지능(AI) 활용 영상으로 나뉘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전은 연령에 따라 19세 이상의 청년·일반부와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부로 구분해 진행된다. 응모자는 개인 또는 2~5인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최대 3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CC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22개 작품을 선발해 오는 9월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ACC 전담장상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2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채널 ACC, 미디어 월, 누리 소통망(SNS) 등 ACC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교육 및 공공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응모 참가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의 'ACC 소식'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52song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공모문을 참고하거나 ACC 교류홍보과(062-601-4264)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